PRESENTED BY TBWA JUNIORBOARD JUNE TO AUGUST

• 주니어보드 36기 뉴스레터 •

광고의 재료가 한자리에



주보마트 36호점

어서 오세요- 주보마트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부터 낯설게 보는 태도까지, 허투루 채운 칸은 없어요.

쓸만한 건 몰래 훔쳐가도 좋아요.
이런 곳을 빈손으로 나가는 게 더 반칙이니까요.
그럼,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JB MART 36TH BRANCH

주보마트 미리보기



Chapter One

장보기

카트 손잡고 마트 한 바퀴

• FRESH PRODUCE •

신선식품 코너

솔직해서 더 싱싱한 광고 이야기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광고기획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모든 이를 위한 광고기획론

양파

오늘 피드백 신선도 최상!

0 032145 0 34248 20494 1

JB's Pick! 김백수 수석님

묻는 족족 건져가리!
갓 잡아 살아있는
현업 직송 Q&A



선택에 도움이 될 가장 현실적인 Q&A

제철 고등어

당일 질문 당일 손질!

0 032145 0 34248 20494 2

JB's Pick! 김형민 부장님

PROCESSED FOODS

가공식품 코너

두고두고 꺼내 먹는 실전 노하우



숙성될수록 깊어지는 맛!
브랜드다움을 끌어내는
브랜딩의 비결



쟁여만 둬도 든든한
고단백 레퍼런스 활용법

제대로 먹히는
아트워크를 위한
꾸덕한 현업 내공



브랜드 컨설팅 알아보기

진간장

0 032145 0 34248 20494 3

100g당 유익함 999원

JB's Pick! 오혜주 수석님

광고 기획 전략 및 아카이빙

참치캔

0 032145 0 34248 20494 4

원산지 불문 고단백만 엄선

JB's Pick! 김수형 국장님

12년차 아트디렉터의 일

그릭요거트

0 032145 0 34248 20494 5

행사기간 내 아무튼 12% 할인

JB's Pick! 최인철 CD님

• FRESH BAKERY •

베이커리 코너

따뜻한 진심으로 속까지 구워 낸 —

매 순간 진하게 녹아드는
업에 대한 진심과 사랑



하나뿐인 이름을 불러주는
브랜드를 향한 달콤한 러브레터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삶

초콜릿 케이크

열정 과다 시 냉장 보관

0 032145 0 34248 20494 6

JB's Pick! 홍선미 부장님

친구를 브랜드 삼아
슬로건 쓰기

러브레터 파이

당도 200%!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0 032145 0 34248 20494 7

JB's Pick! 박지우 CD님

• HOUSEHOLD GOOD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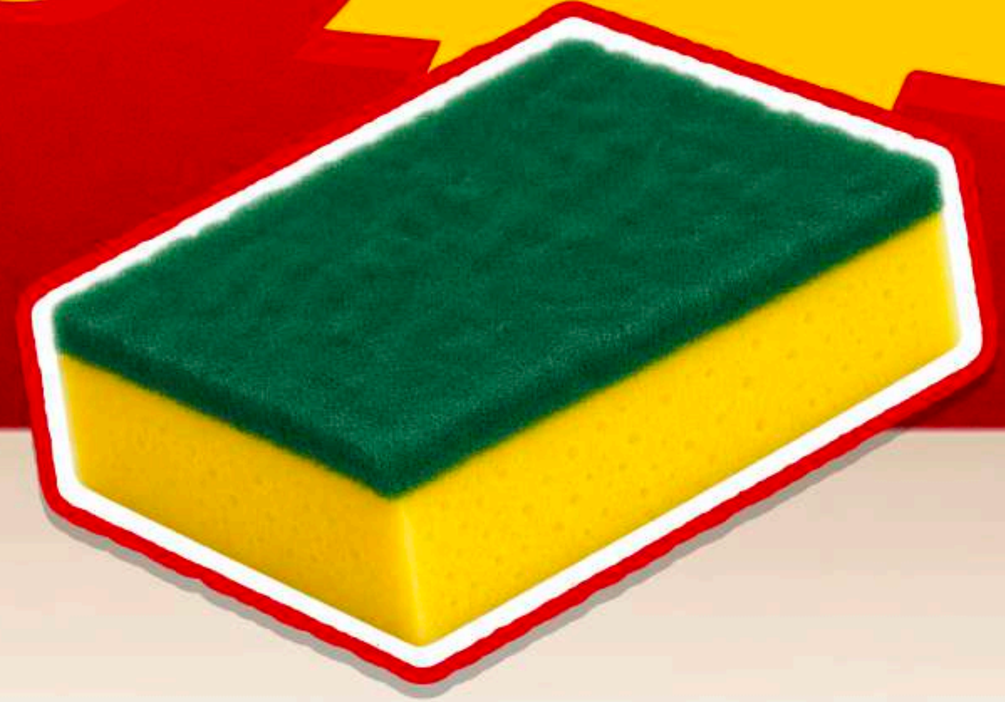
생활용품 코너

똑소리나는 광고생활을 위한 필수템



사고의 주도권을 내 손에 !
디렉터의 눈으로 보는
AI 사용 가이드

AI 티는 말끔히 닦아 내고,
크리에이티브의 한 끗은 살려보자



검색엔진과 AI가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하는
정리정돈의 기술



AI 시대 광고인의 생존전략

TV 리모컨

예비 광고인 추천상품

0 032145 0 34248 20494 8

JB's Pick! 김민재 부장님

아트디렉터가 AI와 상생하는 법

수세미

흔적이 남지 않아 입소문 난 그 제품

0 032145 0 34248 20494 9

JB's Pick! 이루디아 대리님

SEO, GEO와 가까워지기

데스크 정리함

고객문의 폭주! 지금 가장 핫한 제품

0 032145 0 34248 20494 10

JB's Pick! 원예진 차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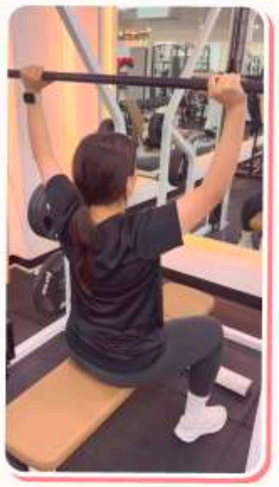
• FREE FOOD SAMPLES •

시식 코너

배운 건 바로 써먹어봐야 제맛!

벽과제

고객들이 들려주는 솔직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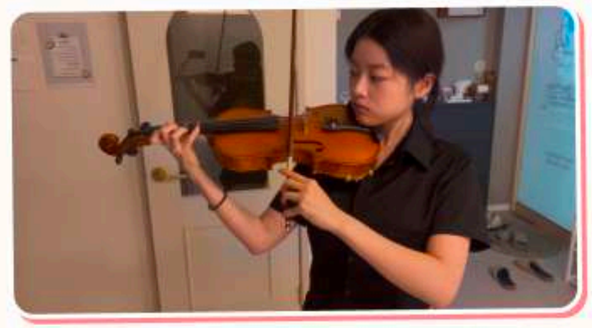
Customer Name. **오현지 CW**

Rating. ★★★★★

제 벽은 남들 앞에서 내 몸무게 공개하기,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 보이기였어요.

PT를 받을 때의 저는, 생각보다도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하게 되면 남의 시선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남의 평가와 판단들에 나를 가두지 않고
일단 도전하는 것에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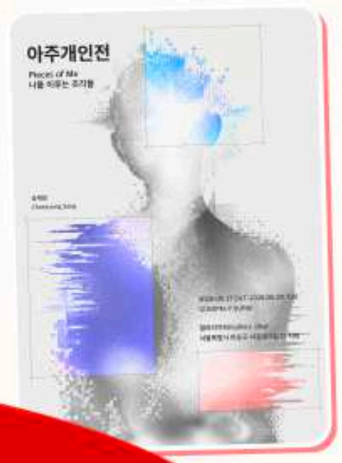


Customer Name. **임소희 AE**

Rating. ★★★★★

지금껏 스스로를 음치, 몸치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막상 악기를 연주해보니 선생님의 시범 연주를 잘 따라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무언가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도전이 내 생각보다 쉽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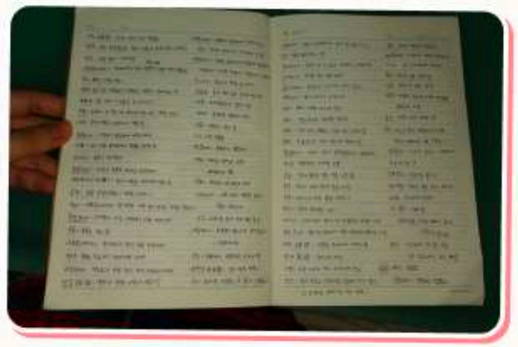
Customer Name. **송채영 AE**

Rating. ★★★★★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던 제가, '나'로 살아갈 결심을 하며 꺼내 보인 <아주개인전>.

새하얀 7평을 저로 채워간 시간과 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흐릿했던 나를 단단히 새겨나갔어요.

가장 큰 벽이었던 '나'를 넘으니, 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Customer Name. **이승리 AD**

Rating. ★★★★★

<토지>를 생전 처음으로 읽으면서, 단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놓친 좋은 고전 작품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긴 호흡이 요구되고 낯선 단어들이 많은 작품이라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했지만, 단어를 찾아보고 집중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고전에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슬로건 과제 →

고객들이 들려주는 솔직 리뷰



Customer Name. **박서영 CW**

Rating. ★★★★★

제게는 참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망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정환 오빠와 친해지지도, 다른 친구들을 모르는 그의 무언가를 발견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오빠의 정보와 면모를 나열하고 조립하고 조합했습니다. 사람과 브랜드가 정말 많이 닮아있음을 배웠습니다.



Customer Name. **고수연 CW**

Rating. ★★★★★

낯가리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다현이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평소 다현이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을 틈틈이 기록하며 주변을 맴돌았고, 그 과정에서 단단하고 자기표현이 확실한 반전 매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랑스럽고 아주 귀엽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Customer Name. **이한승 AE**

Rating. ★★★★★

지원이와 함께 과제 기간 동안 틈틈이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어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동시에 지원이가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Customer Name. **임지윤 AE**

Rating. ★★★★★

제 브랜드, 승리 언니와 여러 차례 인터뷰 타임을 가졌어요. 다채롭고 톡톡 튀는 이야기를 지닌 언니와 대화하다 보니 제 세상까지 한층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승리 언니가 브랜드였다면, 아마 저는 기꺼이 과소비했을 거예요.

고객들이 들려주는 솔직 리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광고 과제

내가 참을 수 없는 것 = **개인을 지우는 화법**

Customer Name. **김수영 AE**

Rating. ★★★★★

기억 속 가장 불쾌했던 커뮤니케이션의 순간을 꺼내고 보니 어떤 광고를 택해야 할지 선명해졌어요.

저는 개인을 지우는 화법을 무엇보다도 싫어해요. 성별, 나이, 역할 따위를 벗어나 개개인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광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Customer Name. **이다현 AD**

Rating. ★★★★★

제가 가장 싫어하는 광고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는지, 반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앞에서 판단할 시간을 빼앗는 설득

Customer Name. **이정환 AD**

Rating. ★★★★★

저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자극하여 일상 속 행동이나 제품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안에 있어 인식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했습니다.

제 가치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최종 프로젝트 →

고객들이 들려주는 솔직 리뷰



Customer Name. **남다현 AE**

Rating. ★★★★★

모든 멘토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같은 기획도 각자의 시선과 경험에 따라 참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매번 피드백을 듣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잘 골라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Customer Name. **박혜리 AD**

Rating. ★★★★★

트렌드를 따라가보는 일, 보다 젊을 때 재미를 향유하고 싶은 욕구,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 등 20대는 자신 안에 다양한 정보를 가득 채워 가치관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독서와 보드게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 이 20대의 고민에 대해 깊이 나누고 있다는 감각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Customer Name. **백지원 CW**

Rating. ★★★★★

인턴 시기, 햇볕을 쬐지 못해 힘들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취감 있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덧붙이고, 수정하고, 디자인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예술 같았어요. 수영, 윤하, 지윤 모두 너무 고마워요!



Customer Name. **정윤하 CW**

Rating. ★★★★★

태초의 우주도 거대한 혼돈에서 시작됐다죠? 망치 이후 새로 하는 프로젝트라 막막할 때도 많았지만,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계셔 감사했어요.

꼬박 10시간을 회의하고, 강의하셨던 선미 부장님을 인터뷰하고, 풀리지 않을 땐 멘토님들께 조언을 구했네요. 숙제처럼 말고 즐기라던 지우 CD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Chapter Two

결제하기

어느새 계산거리가 한가득



잠깐!

계산만 하고 가시려고요?
얻어갈 것들이 여기 더 남아 있어요.

물건을 오래 간직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보마트가 상품마다 작은 문구를 숨겨 놓았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실래요?

QUESTION 1.

주보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잔뜩 채운 36기!
계산대를 지나기 전, 마지막으로 꼭 챙겨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구OOO. 세진 차장님

자기 의심보단 자기 확신을 가지자. 근데 확신은 막연한 자신감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확신의 시작은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힘에서 오는 것 같아. 앞으로의 나의 업을 위해서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위해서든. 그 힘이 망설임을 줄여주는 나침반이 되는 것 같거든.

이건 정말 내가 잘한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덤빌 수 있다! 아니면, 이건 정말 극복 안 되는 약점이다! (약점은 약점으로 두는 것도, 뭐 어때~!)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정리해 놓으면 내 선택에도 확신이 생기고, 타인을 설득하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 지금의 나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을 탄탄하게 잘 정리해보고 만들어 가보자!

이제 너희가 선택한 답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6개월간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더 고생하겠지만! ㅎㅎㅎㅎ

나답기 위한 행복한 고생만 하길 바란다!

구OOO. 형민 부장님

무언가를 잘하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고 일이든 다른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나, 굳이 내가 여기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옵니다.

그럴 때 이 시간이 나의 성장과 배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버티고 감내해보세요. 실력은 결국, 잘 해내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그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1.

주보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잔뜩 채운 36기!
계산대를 지나기 전, 마지막으로 꼭 챙겨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From. 백수 수석님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인생은 오직 자신만이 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판단과 결정도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많은 조언을 들어도, 결국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물론 두렵고 어렵겠지만, 누구도 그리 크게 틀리거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자신을 믿고, 결정하고, 나아가세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피드백을 듣는다 해도, 결국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어야 가장 잘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민이 크다면, 자신이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을 택하세요.

둘째, 듣는 이들과의 화해.

처음 발표 석상, 면접 자리에 서면 무척 떨리고 두렵습니다. 듣는 이들의 수 두 배만큼의 화살이 나를 겨누고 있는 듯 여겨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눈은 두 개니까).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듣는 이들은 당신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청중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여러분은 오롯이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수많은 발표 석상에서 긴장을 가라앉혔고, 여러분 강의에도 임했습니다.

그동안 새끈한 신상도 거의 없고, 상품 가짓수도 엄청나게 부족한 주보마트에서 고민스런 장보기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QUESTION 2.

앞으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한 장 발급해 준다면, 어떤 쿠폰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From. 지우 CP님

'멘생회복 소비쿠폰'
멘티의 마음이
경기 침체일 때
멘토의 재력을
소비할 수 있는 쿠폰

※무차등 지급※
♨즉시 사용 가능♨
010-9***-****

From. 예나 차장님

<뭐든 해낼 수 있어> 쿠폰을 주고 싶어!
6개월 동안 매주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면서, 고민도 하고 때로는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잘 해냈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렵고 막막한 순간이 온다면 지난 6개월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

사회로 나가면 조금 더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오겠지만, 그동안 해온 것처럼 스스로를 믿고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결국 또 잘 해낼 거야!
36기 모두 파이팅!

From. 수현 대리님

[주보 전용] 책 처방 쿠폰

기술이나 능력은 별로 없지만
제가 가진 가장 비싼 보물을 뿌립니다.

아주 짧은 상담 후(?)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을 처방해 드려요. 책이 부담스럽다면 한 문장 서비스도 있습니다.

발행처: 주보마트 수현 대리점
제조원: 박수현 문장 연구소
주의 사항: 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A/S가 가능합니다.

QUEST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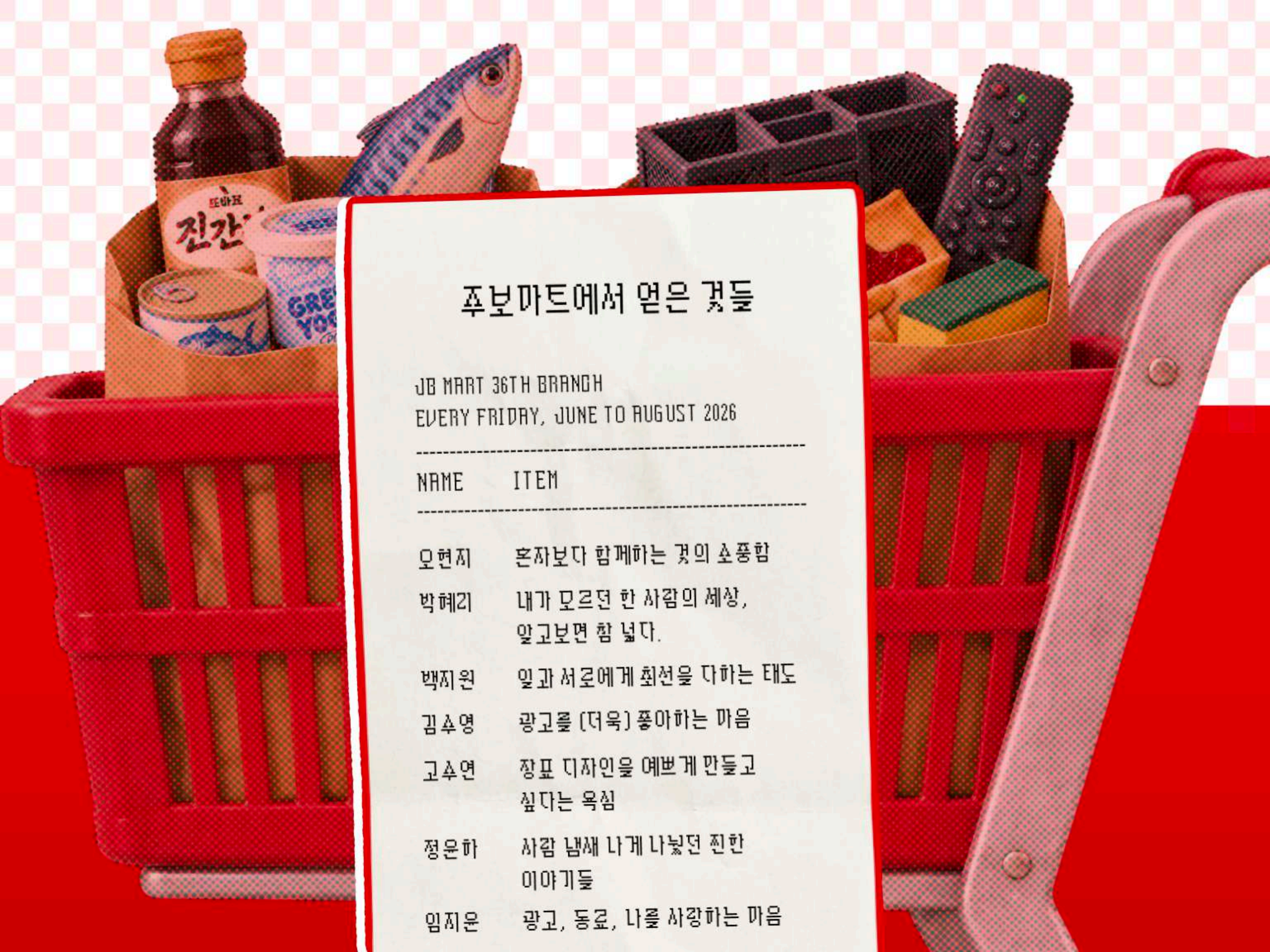
주보마트를 곧 나서게 될 36기.
마주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From. 민석 ECD님

지금까지 잘 달려온 사람들은 조금 빠르게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레이스는,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듯합니다.

From. 민재 부장님

주니어보드를 떠난 여러분이 마주하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강점은 무엇이 될까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그리는 포지셔닝 맵으로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쭈보마트에서 얻은 것들

JB MART 36TH BRANCH
EVERY FRIDAY, JUNE TO AUGUST 2026

NAME　　ITEM

오현지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

박혜리　내가 모르던 한 사람의 세상,
알고보면 참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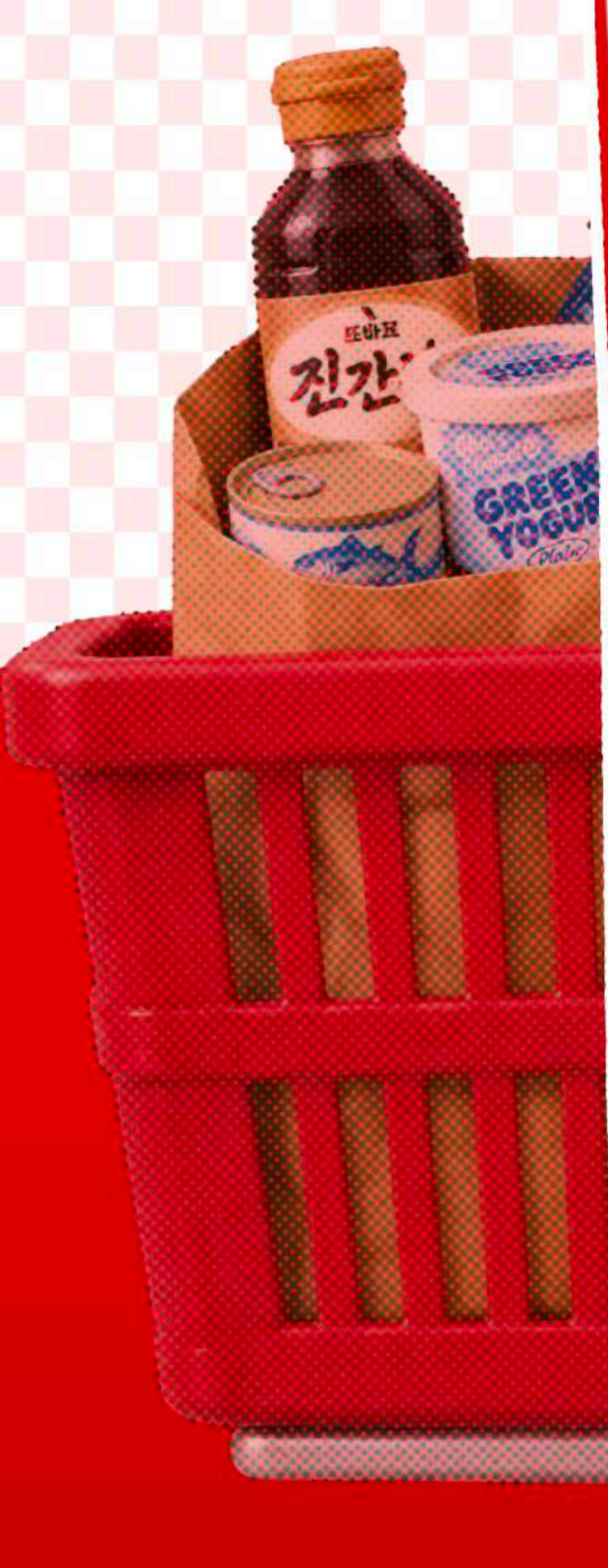
백지원　일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

김수영　광고를 (더욱) 좋아하는 마음

고수연　장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

정윤하　사람 냄새 나게 나눴던 진한
이야기들

임지윤　광고, 동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승리 내가 추구하는 소통 방식
(단순한 게 좋다!)

임소희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

이다현 나도 몰랐던 내 장점과 약점

이정환 다른 직군인 AE의 미감, 카피의
소통 능력

남다현 좋은 질투는 나를 키운다는 것

송채영 나라는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과정

이한승 광고는 멋진 크리에이티브 이전에
오는 기획과 논리 싸움이다!

박서영 꿈이 있는 친구들과 어른들과의 연

ITEM COUNT 15

CARD #: **** **** **** 2026

CARDHOLDER: TBWA JUNIOR BOARD

THANK YOU FOR VISITING!

Chapter Three

귀가하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주보마트 출구

아쉬워하실까 봐, 나가시는 길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주보마트에서 일어났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한쪽 벽면을 따라 광고판에 띄워 놓았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는 동안 안전하게 배웅해 드릴게요.

마법의 주문
채영 웃음~



'채영 웃음'을 외치면 모두가 그녀를
따라 웃기 시작한다. 입을 가리는 포즈부터
눈웃음까지, 송채영 완벽 복제!

프로포즈만
13번째?!

을왕리를 깜짝 방문하신 지우 CD님.
이후 그녀를 둘러싼 집착광공 13인의 고백
공격이 시작되고 마는데...



을왕리에서
행방불명된
사람 둘을



찾(았)습니다

그 시각, 펜션에 없던 2인은 함께 해변에서
비를 맞으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

[2] 프로포즈만 13번째?!
다현 아트가 꺼내든 고백 테마 보드게임 하나에, 졸지에 사랑이 넘쳐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주보의 무자비한 고백 릴레이는 끝날 줄 몰랐다고 한다.

할리스

금요일의 비밀기지



금요일 밤, 우리들의 암묵적인 아지트인
할리스 지하 2층에서 모임은 계속된다.

과연 어떤 비밀스런 이야기가 오갔을까?

JB가 부릅니다 BABY



이 귀여운 아기는 누구일까요~?
정변한 어린이부터 역변의 아이콘까지
즐겁게 매칭해봤던 시간.

희승 SAYS

“니가 와라 하와이”



오래 전 예정돼 있던
하와이 여행으로
최초 비대면 발표를
하게 된 그.

무려 12분짜리 영상편지를 보내며
모두를 감동시키고 마는데...

---

[2] JB가 부릅니다 BABY
뭐든 퀴즈로 만들어 버리는 주보가 이번엔 서로의 어린 시절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아이의 정체를 맞히다 보니 모두의 꼬꼬마 시절이 한자리에 모였다.

[1] 싱글리시 1타 강사 이승리
각자의 최애 콘텐츠를 영업하는 주니어보드 콘텐츠 콘서트, 주보콘.
싱가포르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승리 아트가 '싱글리시'를 가르쳐 주었다.







주보마트 36호점

어느덧 반나절을 함께 보냈네요.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안고 돌아가고 있나요?

비록 우리들의 장보기는 여기까지이지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보마트는 내일도, 모레도 정상 영업합니다!